

1 일본어의 특징

일본어는 우리말과 어순이 같고 문장의 구조 등도 비슷하므로 처음에는 비교적 쉽게 공부할 수 있는 언어이다. 일본어는 히라가나(ひらがな), 가타카나(カタカナ), 한자(漢字)로 표기한다.

히라가나와 가타카나의 기본 글자는 46자이고, 기본 모음은 ‘あ[a], い[i], う[u], え[e], お[o]’의 5개이다. 기본 글자 46자를 하나의 표로 나타낸 것을 ‘오십음도(五十音図)’라고 한다. 오십음도는 10개의 행과 5개의 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나는 글자 하나가 한 박(拍)을 지니므로, 박자의 길이를 정확히 지켜서 발음해야 한다.

2 일본어의 문자와 발음

1) 청음(清音) 청음은 맑은 소리를 내는 음을 말한다.

あ행	あa	いi	うu	えe	おo
----	----	----	----	----	----

‘あ’는 입을 상당히 크게 벌리고 짧게 발음한다. ‘い’는 혀를 위쪽으로 들어 올려서 조금 긴장시켜서 짧게 발음한다. ‘う’는 입을 너무 둥글리지 말고 옆으로 조금 벌려서 발음한다. ‘え’는 혀를 낮게 해서 짧게 발음한다. ‘お’는 입을 조금 둥글려서 짧게 발음한다.

か행	かka	きki	くku	けke	こko
----	-----	-----	-----	-----	-----

か행은 자음 [k]와 모음의 결합으로, 일본어의 [k]는 그다지 강하게 발음하지 않는다. 숨을 내쉬듯이 발음하지 않으면 일본인의 귀에는 [g]와 같이 들리므로 주의해야 한다.

さ행	さsa	しsi	すsu	せse	そso
----	-----	-----	-----	-----	-----

さ행은 자음 [s]와 모음의 결합으로, 이 중 ‘し’음만은 다른 4개의 음과는 달리 혀가 조금 뒤로 가서 [ʃ]가 아니라 영어의 [she]와 같이 발음한다.

た행	たta	ちchi	つtsu	てte	とto
----	-----	------	------	-----	-----

た행은 자음 [t]에 모음이 결합된 행으로, [t]음은 숨을 단숨에 내뿜듯이 명확하게 발음하지 않으면 일본인의 귀에는 ‘た’가 ‘다’와 같이 들리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ち’는 [tʃ]가 아니라 영어 ‘cheese’의 첫음과 비슷하다. ‘つ’의 자음은 [t]와 [s]를 연결해서 발음한다. 영어 ‘it’s’의 끝음과 비슷하다. ‘つ’는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서 발음해야 한다.

な행	なna	にni	ぬnu	ねne	のno
----	-----	-----	-----	-----	-----

な행은 자음 [n]과 모음의 결합으로 특별히 까다로운 발음은 없으나, ‘に’를 발음할 때는 혀를 조금 안쪽으로 넣어서 발음한다.

は행	はha	ひhi	ふfu	へhe	ほho
----	-----	-----	-----	-----	-----

‘は’, ‘へ’, ‘ほ’의 자음은 [h]와 유사하나 숨을 너무 강하게 내지 않는다. ‘ひ’는 혀의 뒤쪽 부분을 높이 올려서 발음한다. ‘ふ’는 [f]가 아니므로 입술을 깨물듯이 발음하지 말고 입술을 둥글려서 숨을 내쉬듯 발음한다.

ま행	まma	みmi	むmu	めme	もmo
----	-----	-----	-----	-----	-----

ま행의 자음은 [m]이지만 [m]음을 짧고 가볍게 발음한다.

や행 や_{ja} (い) ゆ_{ju} (え) よ_{jo}

야행은 ‘야, ゆ, よ’ 세 개뿐이며, 이를 반모음이라고 한다. ‘Yes’의 첫 번째 음에 모음을 결합시킨 것과 같은 음이다.

ら행 ら_{ra} り_{ri} る_{ru} れ_{re} ろ_{ro}

라행의 자음은 [r]로 표기하나 실제로는 혀끝으로 조금 튕기듯이 내는 소리이다.

わ행 わ_{wa} (い) (う) (え) を_o

‘わ’ 이외는 모두 아행의 것과 발음이 같다. ‘わ’의 [w]음은 약하게 발음한다. ‘を’의 실제 발음은 아행의 ‘お’와 같으며, 조사로 쓰이는 특별한 경우에만 ‘を’로 표기한다.

- 2) **탁음(濁音)** 일본어 글자 중에 오른쪽 어깨 위에 탁점(゜)이 붙어 있는 글자를 탁음이라고 한다. 탁음은 말 그대로 탁한 소리를 내는 음으로 성대를 약간 울려서 발음하며, 탁점은 か행, さ행, た행, は행에만 붙는다.

が행 が_{ga} ぎ_{gi} ぐ_{gu} げ_{ge} ご_{go}

자음 [g]에 모음이 결합된 것으로, 이 음은 다른 음 뒤에 오면 영어 ‘king’의 ‘ng’과 같이 콧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비탁음(鼻濁音)이라고 하는데, 현재 비탁음을 사용하는 일본인은 절반 정도이나, 청취를 위해 필요하므로 탁음과 비탁음을 이어서 말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が행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청음인 ‘가’, ‘기’, ‘구’, ‘게’, ‘고’와 별다른 구분 없이 발음을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발음 연습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ざ행 ざ_{dza} じ_{dzi} ず_{dzu} ぜ_{dze} ぞ_{dzo}

[z]에 모음이 결합된 음이나, ‘じ’는 영어 ‘bridge’의 끝 음에 ‘이’가 결합된 것이다. ‘ず’의 경우는 통상 영어 ‘roads’의 끝 음에 ‘우’가 결합된 ‘dz’음으로 생각하면 된다. ざ행의 발음은 우리말에는 없는 발음이므로 주의해야 하며 특히 ‘ぞ’가 ‘じょ’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발음해야 한다.

だ행 だ_{da} ぢ_{dzi} づ_{dzu} で_{de} ど_{do}

‘ぢ’, ‘づ’는 ざ행의 ‘じ’, ‘ず’와 발음이 같아 현재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じ’와 ‘ず’로 표기한다.

ば행 ば_{ba} び_{bi} ぶ_{bu} べ_{be} ぼ_{bo}

자음 [b]에 모음을 결합시킨 것으로, 분명하고 강하게 발음한다.

- 3) **반탁음(半濁音)** は행 글자의 오른쪽 어깨 위에 반탁점(゜)을 붙여서 만든 글자를 말하며, 이 소리는 무성음으로 소리값은 [p]이다.

ぱ행 ぱ_{pa} ぴ_{pi} ぷ_{pu} ぺ_{pe} ぽ_{po}

자음 [p]에 모음이 결합된 것으로, 일본어 고유 단어에는 사용하는 경우가 적으며 외래어 등에 자주 사용한다.

- 4) **요음(拗音)** 요음은 일본어 음절의 하나로 직음에 대립하는 굴절된 소리를 말한다. 예를 들어 ‘きゃ’, ‘きゅ’, ‘きょ’에 대한 직음으로 ‘가’, ‘구’, ‘고’가 있다. 요음은 이단의 음, 즉 ‘키・기・시・じ・치・に・ひ・び・ぴ・み・り’의 오른쪽에 ‘야’, ‘ゆ’, ‘よ’를 작게 써서 ‘きゃ’와 같이 표기한다. 일본어의 글자 하나는 한 박자를 가지지만, 요음의 경우 문자는 2개이지만 하나의 글자로 취급하여

한 박자(拍)의 길이로 발음한다. 예를 들면, いしや(石屋)는 [이시아]라고 3박자로 발음하고, いしや(医者)는 [이샤]라고 2박자로 발음해야 한다. 일본어 요음은 아래와 같다.

きゃ kja	きゅ kj ^ㄴ	きょ kjo	ぎゃ gja	ぎゅ gj ^ㄴ	ぎょ gjo
しゃ ca	しゅ c ^ㄴ	しょ co	じゃ dza	じゅ dz ^ㄴ	じょ dzo
ちゃ tea	ちゅ tc ^ㄴ	ちょ tco			
にゃ na	にゅ n ^ㄴ	にょ no			
ひゃ ca	ひゅ c ^ㄴ	ひょ co	びゃ bja	びゅ bj ^ㄴ	びょ bjo
ぴゃ pja	ぴゅ pj ^ㄴ	ぴょ pjo			
みゃ mja	みゅ mj ^ㄴ	みょ mjo			
りゃ rja	りゅ rj ^ㄴ	りょ rjo			

- 5) 축음(促音)** ‘っ’를 작게 ‘つ’로 표기한 것을 말하며 반드시 한 박자의 길이로 발음해야 한다. 뒤에 오는 글자에 따라 소리가 달라지며 우리말의 받침과 같은 역할을 한다.

 - ▶ **카행 앞** → [k]로 발음한다.

예) ぶっか(물가) がっこう(학교)
 - ▶ **사행 앞** → [s]로 발음한다.

예) ざっし(잡지) けっせき(결석)
 - ▶ **타행 앞** → [t]로 발음한다.

예) いったい(도대체) きっと(우표)
 - ▶ **바행 앞** → [p]로 발음한다.

예) いっぱい(가득) きっぷ(표)
- 6) 발음(撥音)** 발음 ‘ん’은 반드시 한 박자의 길이로 발음해야 한다. 단독으로는 음절을 구성하지 못하고 바로 앞에 모음과 함께 음절을 구성하면서 뒷소리의 영향을 받는다.

 - ▶ **마·바·바행의 음 앞에 올 때** → [m]으로 발음한다.

예) さんま(곰치) じんぶつ(인물) さんぽ(산책)
 - ▶ **사·자·타·다·나·라행의 음 앞에 올 때** → [n]으로 발음한다.

예) せんせい(선생님) ぎんざ(긴자) はんたい(반대) うんどう(운동) みんな(모두) かんり(관리)
 - ▶ **카·가행의 음 앞에 올 때** → [ɲ]으로 발음한다.

예) てんき(날씨) りんご(사과)
 - ▶ **아·하·야·와행의 음 앞에 올 때, 문장 끝에 올 때** → [N]으로 발음한다(비음).

예) れんあい(연애) ぜんはん(전반) ほんや(서점) でんわ(전화)

ほん(책) しんぶん(신문) すみません(미안합니다)
- 7) 장음(長音)** 같은 모음이 중복되어 나올 때, 뒤의 글자는 정확하게 발음하지 않고 앞 글자를 2박자의 길이로 길게 발음한다. 장음의 여부에 따라 완전히 다른 뜻의 말이 되므로 박자의 길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 ▶ **아단의 글자 뒤에 ‘あ’가 올 때**

예) おばあさん(할머니) : 5박자 / おばさん(아주머니) : 4박자 おかあさん(어머니) : 5박자

- ▶ 이단의 글자 뒤에 'い'가 올 때
 예 おじいさん(할아버지) : 5박자 / おじさん(아저씨) : 4박자 おにいさん(형, 오빠) : 5박자
- ▶ 우단의 글자 뒤에 'う'가 올 때
 예 ゆうき(용기) : 3박자 / ゆめ(꿈) : 2박자
- ▶ え단의 글자 뒤에 'い'나 'え'가 올 때
 예 ゆうめい(유명) : 4박자 / ゆめ(꿈) : 2박자 えいご(영어) : 3박자
 ええ(네) : 2박자 / え(그림) : 1박자 おねえさん(언니, 누나) : 5박자
- ▶ お단의 글자 뒤에 'う'나 'お'가 올 때
 예 こうこう(고등학교) : 4박자 / ここ(여기) : 2박자 おとうさん(아버지) : 5박자
 とおる(지나가다) : 3박자 / とる(집다) : 2박자 とお(열, 10) : 2박자
- ※ 가타카나의 장음은 「一」로 표기한다.
 예 メール(메일) タクシー(택시) ノート(노트) スーパー(슈퍼마켓)

3 숫자 읽기

일본어의 숫자는 한자식으로 읽는 방법(いち, に, さん, し, ……)과 일본 고유어로 읽는 방법(ひとつ, ふたつ, みっつ, よっつ, ……)이 있다. 한자식은 주로 시간, 날짜, 화폐 등을 셀 때 쓰고, 일본 고유어는 개수를 셀 때 쓴다. 숫자 1~10까지만 고유어로 읽고, 나머지는 한자식으로 읽는다. 100단위에서 '百'는 앞에 오는 숫자에 따라 'ひゃく, びゃく, ぴゃく'로 읽고, 1000단위에서 '千'은 앞에 오는 숫자에 따라 'せん, ぜん'으로 읽는다.

① 1~20

	1	2	3	4	5
한자식	いち(일)	に(이)	さん(삼)	し・よん(사)	ご(오)
고유어	ひとつ (하나, 한 개)	ふたつ (둘, 두 개)	みっつ (셋, 세 개)	よっつ (넷, 네 개)	いっつ (다섯, 다섯 개)
	6	7	8	9	10
한자식	ろく(육)	しち・なな(칠)	はち(팔)	く・きゅう(구)	じゅう(십)
고유어	むっつ (여섯, 여섯 개)	ななつ (일곱, 일곱 개)	やっつ (여덟, 여덟 개)	ここのつ (아홉, 아홉 개)	とお (열, 열 개)
	11	12	13	14	15
한자식	じゅういち (십일, 열하나)	じゅうに (십이, 열둘)	じゅうさん (십삼, 열셋)	じゅうし・ じゅうよん (십사, 열넷)	じゅうご (십오, 열다섯)
	16	17	18	19	20
한자식	じゅうろく (십육, 열여섯)	じゅうしち・ じゅうなな (십칠, 열일곱)	じゅうはち (십팔, 열여덟)	じゅうく・ じゅうきゅう (십구, 열아홉)	にじゅう (이십, 스물)

② 10~1000 단위

10단위	じゅう	にじゅう	さんじゅう	よんじゅう	ごじゅう
	ろくじゅう	ななじゅう・しちじゅう	はちじゅう	きゅうじゅう	何十 (なんじゅう)
100단위	ひゃく	にひゃく	さんびゃく	よんひゃく	ごひゃく
	ろっぴゃく	ななひゃく	はっぴゃく	きゅうひゃく	何百 (なんびゃく)
1000단위	せん	にせん	さんぜん	よんせん	ごせん
	ろくせん	ななせん	はっせん	きゅうせん	何千 (なんぜん)

4 명사의 기본 문형

일본어에서 명사를 활용한 기본 문형에 대해 알아보자.

1) ~は~です ~은(는) ~입니다

긍정을 나타내는 정중체이다. ‘は’는 [ha]로 읽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사로 쓰일 때는 [wa]라고 읽는다. ‘です’는 사물을 단정하는 공손한 말로 우리말의 ‘~입니다’에 해당한다. 반말은 ‘だ’로 우리말의 ‘~이다’에 해당한다.

예) これは本です。

わたしはこばやしです。

わたしは会社員だ。

2) ~は~ですか ~은(는) ~입니까?

‘ですか’는 ‘です’에 의문이나 질문을 나타내는 조사 ‘か’를 붙인 표현으로, 우리말의 ‘~입니까?’에 해당한다.

예) これは何ですか

学校はどこですか。

3) ~は~では(じゃ)ありません ~은(는) ~이 아닙니다

‘ではありません’은 ‘です’의 부정 표현이다. 이때 は는 ‘~은(는)’이라는 의미보다 강조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가)’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때가 많다. 회화에서는 ‘ではありません’보다 ‘じゃありません’이 더 많이 쓰인다.

예) これは本ではありません。

わたしはこばやしでは(じゃ)ありません。

4) ~は~の~です ~은(는) ~의 ~입니다

앞의 명사가 뒤의 명사를 수식할 때는 ‘명사+の’의 형태로 명사를 수식한다.

예) これはわたしの本です。

かれは高校の先生です。

5) ~は~で, ~です ~은(는) ~이고, ~입니다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여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 때 쓰는 ‘で’는 우리말의 ‘~이고’에 해당한다. 단정의 조동사 ‘だ’의 연용형으로, 중지법으로 사용되었다.

예) わたしは学生です。+兄は会社員です。

→ わたしは学生で、兄は会社員です。

姉は先生です。+ 日本料理が上手です。

→ 姉は先生で、日本料理が上手です。

5 기본 조사

조사란 자립할 수 없으며 활용을 하지 않는 어근을 말한다. 일본어의 기본이 되는 조사를 알아보자.

1) ～は ～은(는)

주제를 나타낸다.

예 わたしは韓国人です。

2) ～が ～이(가), ～을(를)

① 동작과 작용, 또는 성질과 상태를 갖는 주체, 즉 주어를 나타낸다.

예 風が吹く。

② 상태의 대상을 나타낸다. 희망 표현 ‘たい’와 ‘ほしい’, 가능 동사, ‘好きだ, 嫌いだ, 上手だ, 下手だ’와 같은 일부 な형용사, 동사 ‘わかる’ 등이 쓰인 경우에 한한다. 이때 ‘が’는 ‘～을(를)’로 해석한다.

예 おいしいケーキが食べたい。

妹は英語ができます。

弟はスポーツが好きです。

3) ～の ～의, ～의 것, ～이(가)

① 명사와 명사를 연결하는 ‘の’는 ‘명사+의’의 형태로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한다. 일반적으로 ‘～의’라고 해석하며, 명사 간의 의미 관계에 따라 소유, 소속, 인간 관계, 종류, 내용 등 다양한 의미 분류가 가능하다. 우리말에서는 ‘～의’가 자주 생략되는 반면 일본어에서는 대부분 생략되지 않는다.

예 わたしの本 日本語の先生

バラの花 弟のたけし

② ‘～의 것’이라는 소유격의 의미로 쓴다.

예 この本はわたしのです。

これは誰のですか。

③ 앞의 절이 뒤에 오는 명사나 대명사를 수식할 경우, 앞 문장의 주어는 일반적으로 ‘が’ 대신 ‘の’를 쓰기도 한다. ‘が’를 그대로 써도 된다.

예 田中さんの住んでいた町はしょうゆが有名です。

世界で一番人口の多い国は中国です。

4) ～を ～을(를)

① 동작과 작용의 목적을 나타낸다.

예 ご飯を食べる。

これから会議を始めます。

② 동작이 이루어지는 장소나 범위, 통과하는 장소를 나타낸다.

예 鳥が空を飛びます。

学校の前を通ります。

③ 출발, 분리의 장소를 나타낸다.

예 お父さんは毎朝7時に家を出ます。

電車を降ります。

5) ～に ～에, ～에게, ～하러, ～으로

① 사람이나 사물이 존재하는 장소를 나타낸다.

예 箱の中にボールがあります。

運動場に学生たちがいます。

- ② 동작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나타낸다.

예) わたしは毎朝6時に起きます。

- ③ 도착점을 나타낸다.

예) やつと空港に着きました。

- ④ 동작이나 행동의 상대를 나타낸다.

예) 母に手紙を出します。

- ⑤ ‘동사의ます형+に’, ‘동작성 명사+に’에 접속하여 동작의 목적을 나타낸다.

예) 木村さんは映画を見に行きます。
きのう母と買い物にデパートへ行きました。

- ⑥ 사물이나 상태의 변화를 나타낸다.

예) 信号が赤に変わりました。

人口が10万に増えました。

- ⑦ ‘に’ 뒤에 ‘会う, 乗る, 似る’ 등의 동사가 올 경우, ‘に’는 우리말로 ‘~을(를)’로 해석한다.

예) きのう、ひさしぶりに友だちに会いました。
バスに乗って、学校へ来ます。

6) ~も ~도, ~이나

- ① 같은 종류임을 나타낸다.

예) 彼はソウルで生まれました。わたしもソウルで生まれました。

- ② 강조의 의미를 나타낸다.

예) パンを三つも食べました。

7) ~へ ~에, ~으로

- ① 동작의 진행 방향이나 목적지를 나타낸다.

예) わたしは学校へ行きます。

- ② 동작의 대상을 나타낸다.

예) みなさんへよろしくお伝えください。

8) ~と ~와(과)

- ① 사물의 열거를 나타낸다.

예) 机の上には本とノートとえんぴつがあります。

- ② 공동 행위의 대상을 나타낸다.

예) きのう、彼と会う約束をしました。

- ③ 비교의 대상을 나타낸다.

예) 田中さんと私は意見が違います。

9) ~で ~에서, ~으로, ~때문에, ~에

- ① 동작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나타낸다.

예) 図書館で本を読みます。

- ② 수단, 방법을 나타낸다.

예) 電車で学校へ行きます。

- ③ 재료를 나타낸다. (원재료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음)

예) 木でえんぴつを作ります。

- ④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낸다.

예) きのうは風邪で欠席しました。

- ⑤ 범위를 나타낸다.

예) クラスで誰が一番きれいですか。

⑥ 숫자에 한도를 나타내거나 기준을 나타낸다.

예 りんごはいつでいくらですか。

⑦ 동작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나타낸다.

예 二人で映画を見に行きました。

10) ~から ~부터, ~에서, ~으로, ~때문에

① 시간의 시작점이나 장소의 출발점을 나타낸다.

예 授業は9時から始まります。

学校は家からどのぐらいかかりますか。

② 원료를 나타낸다. (원재료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변화함)

예 牛乳からバターが作ります。

③ 사건의 발단이 된 원인과 이유를 나타낸다.

예 たばこの火から火事が起こりました。

11) ~まで ~까지

① 이동이 끝나는 장소를 나타낸다.

예 この電車に乗って、東京まで行きます。

② 이동이 끝나는 시간을 나타낸다.

예 試験は午前9時から午後3時までです。

12) ~より ~보다, ~부터

① 비교의 기준을 나타낸다.

예 田中さんはわたしより歌が上手です。

② 시간의 시작점을 나타낸다. (보통 회화체에서는 ‘から’를 많이 쓴다.)

예 授業は9時より始まります。

6 지시어 これ／それ／あれ／どれ

1) 현장 지시

▶ **コ系** 말하는 사람이 자신의 영역에 있는 사물을 가리킬 때 사용한다. A와 B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경우, 서로 자신의 영역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물을 가리킬 때는 A, B 모두 ‘これ’를 사용한다.

▶ **ソ系** A와 B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경우, A가 상대(B)의 영역에 있는 것을 가리킬 때 ‘それ’라고 한다. B도 상대(A)의 영역에 있는 사물을 가리킬 때에는 ‘それ’라고 한다.

▶ **ア系** A와 B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경우, A, B 모두 자신의 영역에도 상대의 영역에도 들어 있지 않은 사물을 가리킬 때 ‘あれ’라고 한다.

▶ **ド系** ‘ド系’는 불확실한 것을 가리킬 때 사용한다. ‘ド系’ 뒤에는 ‘ハ’는 사용하지 못하고 ‘ガ’만 사용한다. ‘ハ’는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가리키고, ‘ガ’는 미지의 정보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화자가 ‘どれ’, ‘どこ’를 사용해서 물을 때는 어느 것인지, 또는 장소가 어디인지 몰라서 묻는 것이므로 미지의 정보가 된다.

정리하면 ‘コ系’는 화자가 자신의 영역에 들어왔다고 생각되는 것을 지시할 때 사용하고, ‘ソ系’는 상대의 영역에 속하는 것을, ‘ア系’는 화자나 청자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단, 화자와 청자가 한 영역에 있다고 간주되면 ‘コ系’는 가까이 있는 것, ‘ア系’는 멀리 있는 것으로 대립이 되고, 그 중간은 ‘ソ系’가 된다. 이 거리감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대부분 심리적인 것이다. 특히, 장소를 나타내는 지시어는 후자의 경우가 되기 쉽다.

예 1 사람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경우

A: これは何ですか。 B: それはキウィです。

A: そこからここまで5mぐらいでしょうか。(상대방이 있는 곳에서)

예 2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경우

A: これはあなたのですか。 B: これは違います。私のはあれです。

A: (두 사람에게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상자를 보고) その箱は何ですか。

B: ああ、それは古い本です。

A: (방안에서) トイレは、そこの階段を下りて左です。

A: (건물 창문에서 바로 아래를 가리키며) その変な色の建物は何ですか。 B: 公衆トイレですよ。

2) 문맥 지시

문맥 지시는 문장이나 이야기 중에 등장한 일들이나 기억 중의 일들을 가리킬 때에 사용하는데 화자나 청자가 다 알고 있는 것은 ‘ア系’를, 그렇지 않은 것은 ‘ソ系’를 사용한다.

▶ **コ系** 화자가 이제부터 말을 하려고 하는 일들을 나타낸다. 즉 지시하는 것이 뒤에 나올 때 사용한다. 이 경우 ‘ソ系’, ‘ア系’는 사용할 수 없다.

예) ねえ、[この、*その、*あの]話、知っている? 佐藤さん結婚するんだって。

▶ **ソ系** 상대방이 말한 내용을 받아서 말을 할 경우에 사용한다. 이때는 ‘コ系’, ‘ア系’는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지금 막 나온 화제 속의 일을 나타낼 경우는 ‘コ系’는 사용할 수 있지만, ‘ア系’는 사용할 수 없다.

예) A: 子供のころは田舎の家によく遊びに行きました。

B: [その、*この、*あの]家にはおじいさんが住んでいたんですか。

A: 今度、会社を辞められるそうですね。

B: ええ、そうなんです。でも[この、その、*あの]ことは、誰にも言わないくださいね。

▶ **ア系** 화자나 청자가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을 가리킬 때 사용한다. ‘コ系’, ‘ソ系’는 사용할 수 없다.

예) A: きのうレストランメイコへ行ったんですよ。

B: ああ、[あそこ、*ここ、*そこ]はいい店ですね。

▶ 지시어 정리

구분	근칭	중칭	원칭	부정칭
사물	これ	それ	あれ	どれ
장소	ここ	そこ	あそこ	どこ
방향	こちら	そちら	あちら	どちら
명사 수식	この	その	あの	どの

7こちら

‘こちら’는 원래 방향을 나타내지만 사람을 가리킬 때도 사용한다. ‘この人’보다 공손한 표현으로 사용되며 ‘こちらの方’라고 하면 더욱 공손한 표현이 된다. ‘こちら’는 전화에서 자신을 가리킬 때도 사용한다.

예) こちらが留学生の田中さんです。

8 모음의 무성화

모음의 무성화(Devoicing of Vowels)는 발음을 용이하게 하려는 본능적인 현상에 의한 음운 변화로 모음이 소리를 잃고 마는 현상을 말한다. 모음은 원래 모두 유성음인데 ‘イ’와 ‘ウ’의 두 모음은 앞뒤의 음성 환경에 따라서 입 모양은 같으나 발음이 들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i]나 [u]의 앞과 뒤에 무성 자음이 올 때

예) きた しち ふく くさ

2) 무성 자음 + 어말(문말) 위치의 [i]나 [u]

예) はし(첫가락) ~です ~ます

3) [i]나 [u]가 어두, 즉 문장이나 단어의 맨 첫소리에 오고, 곧 이어서 무성 자음이 올 때

예) いく いきる うつる うたう

9 何의 발음

1) なに

뒤에 내용이나 명칭을 묻는 말이 와서 여러 종류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물을 때나, 조사 ‘か’, ‘が’, ‘で’, ‘に’, ‘も’, ‘を’, ‘~から~まで’, ‘~より’ 등이 이어지는 경우에 사용한다.

예) 何色(なにいろ) 何駅(なにえき) 何事(なにごと)
何(なに)が 何(なに)も 何(なに)から何(なに)まで

2) なん

뒤에 수량을 나타내는 말이 와서 ‘몇’이라는 의미로 쓰일 때나, 조사 ‘の’, ‘で’, ‘と’나 조동사 ‘だ’, ‘です’가 이어지는 경우에 쓴다.

예) 何時(なんじ) 何人(なんにん) 何階(なんかい) 何枚(なんまい)
何(なん)の話(はなし) 何(なん)ですか

※ 何曜日(なんようび, なにようび)와 같이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10 い형용사와 な형용사

형용사는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 속성이나 감정, 감각을 나타내는 말로, 동사와 마찬가지로 문장 안에서 주어의 성질이나 상태 등을 서술한다. 주로 명사를 수식하며, 경우에 따라 동사를 수식하기도 한다. 또한 동사와 마찬가지로 어미 활용을 한다.

일본어의 형용사는 ‘高い, 安い, 寒い’와 같이 어미가 ‘い’로 끝나는 ‘이형용사’와 ‘上手だ, 親切だ, きれいだ’와 같이 어미가 ‘だ’로 끝나는 ‘나형용사(형용동사라고도 한다)’로 나뉜다. ‘이형용사’는 ‘나형용사’와 구별하기 위한 용어로, 명사를 수식할 때 ‘이형용사’는 ‘~い’의 형태가 되고, ‘나형용사’는 ‘~な’의 형태가 되는 것에서 이름이 붙여졌다.

예) これはおもしろい小説です。
あの赤い自転車はだれのですか。
山田さんは親切な人です。
あのきれいな人は加藤さんの奥さんです。

‘高い’와 ‘きれいだ’의 공손한 형태는 ‘高いです’와 ‘きれいです’이다. ‘高いです’는 ‘高い’까지가 하나의 단어이고, 공손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です’를 붙인 것인 반면, ‘きれいです’는 전체가 하나의 단어로, 뒤의 ‘です’는 ‘きれいだ’에서 ‘だ’가 변한 형태이다.

예) 高いです → 高い + です (공손을 나타내는 ‘です’가 덧붙여진 것임)
きれいです →きれいだ (‘だ’가 공손한 형태의 ‘です’로 변화한 것임)

‘이형용사문’과 ‘나형용사문’을 살펴보면 긍정문(공손체)은 비슷하지만 부정문은 다른 형태를 띤다. ‘나형용사문’의 부정형은 ‘명사문’과 같이 ‘です’가 ‘ではありません’으로 변화하지만, ‘이형용사문’의 부정은, ‘です’는 변화하지 않고, ‘이형용사’ 자체가 변화한다. 과거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긍정문(공손체)	과거문	과거부정문
이형용사	暑いです	暑かったです	暑くありませんでした
な형용사	元気です	元気でした	元気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
명 사	高校生です	高校生でした	高校生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

11 선택의 ～にする와 ～になる

‘～にする’은 우리말의 ‘～로 하다’에 해당하는 말로, 여러 사항 중에서 의식적으로 어떤 한 가지를 선택하여 결정할 때 사용하고, ‘～になる’은 우리말의 ‘～이(가) 되다’에 해당하는 말로, 타인의 의지나 조건에 의해 결정된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따라서 ‘～にする’가 화자의 적극적인 자세를 나타낸다.

예) のどがかわいたから、コーラにします。

午前の試合は雨のために中止になりました。

12 시간 읽기

시간과 분은 숫자 읽기에 각각 ‘～時’과 ‘～分’을 붙여서 말하는데, 4시, 7시, 9시의 발음과 1분, 3분, 4분, 6분, 8분의 발음에 주의한다.

1) ～시(時)

1時	2時	3時	4時	5時	6時	
いちじ	にじ	さんじ	よじ	ごじ	ろくじ	
7時	8時	9時	10時	11時	12時	何時
しちじ	はちじ	くじ	じゅうじ	じゅういちじ	じゅうにじ	なんじ

2) ～분(分)

1分	2分	3分	4分	5分	6分	
いっぶん	にぶん	さんぶん	よんぶん	ごぶん	ろっぶん	
7分	8分	9分	10分	15分	20分	25分
ななぶん	はっぶん	きゅうぶん	じゅっぶん	じゅうごぶん	にじゅっぶん	にじゅうごぶん
30分／半	35分	40分	45分	50分	60分	何分
さんじゅっぶん ／はん	さんじゅう ごぶん	よんじゅっ ぶん	よんじゅう ごぶん	ごじゅっぶん	ろくじゅっぶん	なんぶん

13 주격 조사 ‘は’와 ‘が’의 용법

명사문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다음 두 문장의 차이이다.

예) 1 私は田中です。

예) 2 私が田中です。

위의 예)1과 예)2 두 문장을 영어로 옮기면 모두 ‘I am Tanaka.’가 되므로, 이 두 문장만으로는 차이를 알 수가 없다. 예)2와 같이 ‘が’를 사용한 문장을 다음 문장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예) 3 A: 田中さんはいますか。

B: 田中は私です。

위 예)2와 예)3의 B는 미묘한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장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같으며 듣는 사람에게 위화감을 느끼게 하지 않으므로 동일한 문장으로 봐도 문제가 없다.

명사문에서 'は'와 'が'의 차이는

예 4 A: これは何ですか。

B: それはキウィです。(=キウィです)

예 5 A: あなたはどなたですか。

B: 私は田中です。(=田中です)

위 두 개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AはBです' 형태의 명사문에서 '질문의 초점(焦点)·대답의 초점', 바꿔 말하면 '듣고 싶은 것, 말하고 싶은 것'은 'は'의 뒤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에 비해, 'BはAです' 형태의 문장은 B에 적합한 많은 것 중에서 'A'를 선택한 듯한 뉘앙스이다. 이런 경우에서의 대답은 'Bです'만으로도 충분하다.

예 6 A: あなたのかさはどれですか。

B: 私のかさはこれです。(=これです)

예 7 A: 田中さんはどの人ですか。

B: 田中さんはあの人です。(=あの人です)

예 8 A: どれがあなたのかさですか。

B: これが私のかさです。(=これです)

예 9 A: どの人が田中さんですか。

B: あの人が田中さんです。(=あの人です)

예 6, 예 7과 같이 'は'를 사용한 문형에서 'は' 뒤에 의문어가 오는 것은 그것이 바로 듣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예 8, 예 9에서처럼 'が' 앞에 의문어가 들어 있는 질문에 대답할 경우에는 'が' 앞에 오는 명사를 넣어 '~です'라고 답하면 된다.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AはBです(BはAです)'에서 'は'의 뒷부분이 듣고 싶은 것, 말하고 싶은 것이다.
- 2 'AがBです'에서는 'が'의 앞부분이 듣고 싶은 것, 말하고 싶은 것이다.
- 3 의문어는 'AはBです'에서는 'は' 뒤에 오고, 'AがBです'에서는 '가' 앞에 온다.

명사문에서 'は'와 '가'의 차이는, 듣고 싶은 것, 말하고 싶은 것, 즉 정보의 초점 차이이다. 의문어나 대답의 초점을 앞에 두고 싶을 때는 '~が~です'를, 뒤에 두고 싶을 때는 '~は~です'를 사용한다.

※ 'AはBです'에서는 'Bです', 'A가Bです'에서는 'A가' 부분이 초점에 해당한다. 'AはBです'의 'Aは'는 '主題'이다. 단순히 '田中です.'라고만 말했다면, 나의 일인지 다른 사람의 일인지 알 수 없다. 주제는 대화의 흐름 속에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경우에만 생략될 수 있다. 위의 예에서 주제가 생략된 것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대화의 '主'가 되고 있는 것을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는 것이다. 'A가Bです' 문장은 'BはAです'로 바꿔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대화의 흐름 속에서 'A가'는 설명 부분으로, 'B(です)'는 '主題'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14 동사의 종류

동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동작, 작용, 상태 등을 나타낸다. 일본어의 모든 동사는 어미가 우단으로 끝난다. 어미의 종류에 따라 5단 동사(1류 동사), 1단 동사(2류 동사), 불규칙 동사(3류 동사)로 나뉜다.

1) 5단 동사(1류 동사)

- ① 어미가 'る'로 끝나지 않은 모든 동사 즉, 어미가 'う, く, ぐ, す, つ, ぬ, ぶ, む'로 끝나는 동사

예 会う, 行く, 泳ぐ, 話す, 待つ, 死ぬ, 遊ぶ, 飲む

- ② 어미가 'る'로 끝나는 동사 중에서 'る' 앞의 음이 ア단·ウ단·オ단으로 끝난 동사

예 ある, 終わる, 売る, 送る, 起こる, 乗る

③ 형태는 1단 동사(2류 동사)이지만, 예외적으로 5단 동사인 경우

예 帰る, 走る, 知る, 切る, 入る, 要る 등

2) 1단 동사(2류 동사)

어미가 ‘る’로 끝나는 동사 중에서 ‘る’ 앞의 음이 ㅣ단이나 ɔ단으로 끝난 동사

예 見る, 着る, 起きる, 食べる, 出る, 教える

3) 불규칙 동사(3류 동사)

‘来る, する’ 두 종류밖에 없다.

예 来る, する, 勉強する, 運転する, 結婚する

15 동사의 활용

일본어의 동사는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어미 형태가 달라진다.

1) 동사의 ます형

동사가 ‘ます’에 접속하기 위해 변화한 형태를 ‘ます형’이라고 하며, 동사에 ‘ます’가 붙으면 정중체가 된다. 우리말의 ‘~습니다’에 해당한다.

① 5단 동사(1류 동사) : 동사의 어미 ‘ㄴ’을 ‘ㅣ단’으로 바꾸고 ‘ます’를 붙인다.

② 1단 동사(2류 동사) : 동사의 어미 ‘る’를 없애고 ‘ます’를 붙인다.

③ 불규칙 동사(3류 동사) : 불규칙하게 활용한다. ‘한자어+する’ 형태의 동사도 모두 불규칙 활용을 한다.

예 私はあした友だちの家へ行きます。

朝ごはんは7時ごろに食べます。

2) 동사의 ます형+ません

‘~ません’은 동사의 정중체 부정형으로 우리말의 ‘~하지 않습니다’에 해당한다.

예 あしたは学校へ行きません。

夜9時以降には何も食べません。

3) 동사의 ます형+ましょう

‘~ましょう’는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제안하거나 권유하는 표현으로, 우리말의 ‘~합시다’에 해당한다.

예 ちょっと休みましょう。

8時に空港で会いましょう。

▶ ます・ません・ましょう의 활용표

동사의 종류	기본형	접속 방법	~ます／~ません／~ましょう
5단 동사 (=1류 동사)	会う	동사의 어미 ㄴ단을 ㅣ단으로 바꾸고 ます를 붙인다.	会います／会いません／会いましょう
	行く		行きます／行きません／行きましょう
	泳ぐ		泳ぎます／泳ぎません／泳ぎましょう
	話す		話します／話しません／話しましょう
	待つ		待ちます／待ちません／待ちましょう
	死ぬ		死にます／死にません／死にましょう
	遊ぶ		遊びます／遊びません／遊びましょう
	飲む		飲みます／飲みません／飲みましょう
	乗る		乗ります／乗りません／乗りましょう

1단 동사 (=2류 동사)	見る	동사의 어미 る을 없애고 ます를 붙인다.	見ます／見ません／見ましょう
	食べる		食べます／食べません／食べましょう
불규칙 동사 (=3류 동사)	来る	불규칙하게 활용을 한다.	来ます／来ません／来ましょう
	する		します／しません／しましょう

16 동사의 ます형(동작성 명사)+~に(목적)

‘동사의 ます형’이나 ‘동작성을 지닌 명사(買物, 食事, 散歩 등)’가 조사 ‘に’에 연결되면, ‘に’는 목적을 나타내고, 우리말의 ‘~하러’란 뜻에 해당한다. ‘に’의 뒤에는 ‘行く, 来る, 帰る, 出る, 出かける, 戻る’처럼 왕래발착의 의미를 지닌 동사가 온다.

예 図書館へ資料を探しに行きます。

うちへご飯を食べに来ます。

17 종조사 ‘ね’와 ‘よ’

1) ね

① 동의 : 화자가 청자의 의견에 동의를 나타낼 때

예 A: これはいいですよ。 B: 本当にそうですね。

A:今日は寒いね。 B:寒いね。

A: 疲れたねえ。 B: ああ、そうだねえ。

위의 예문에서는 ‘よ’의 주장에 대해 ‘ね’로 동의하거나, 동의를 구하는 ‘ね’에 대해 ‘ね’로 대답하고 있다. 이들 예문에서 ‘ね’를 생략하면, 다음과 같이 어딘지 모르게 어색한 발화가 되어 상대방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게 된다.

예 A: これはいいです。 B: 本当にそうです。

A:今日は寒い。 B:寒い。

A: 疲れた。 B: ああ、そうだ。

혼자서 감탄하는 경우에도 사용하지만, 역시 대화 상대가 없으면 부자연스럽다.

예 (전람회에서)

A: これいいねえ。

B: もう帰ろうよ。

A: (무시하며) ふうん。やっぱりいいねえ。

② 확인 : 청자에게 뭔가를 확인할 때는 말 끝에 ‘ね’를 붙이고 끝을 올려 말한다. 의문의 ‘か’를 사용하면 비슷한 의미가 되지만, 말하는 사람이 그 사실에 대해 지식이 없을 경우에 하는 질문이라는 차이가 있다. 확인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ねえ’라고 길게 발음하면 어색하므로 주의한다.

예 A: これはあなたのカサですね。↗

B: はい、そうです。

A: あなたも行きますね。↗

B: はい、行きます。

위의 예문에서 ‘ね’를 붙이지 않으면 단정적으로 말하는 문장이 된다.

예 これはあなたのカサです。

あなたも行きます。

2) よ

- ① 주장·명시：청자에게 정보를 알려 주고자 할 때 사용하며 내용에 따라서는 청자와 생각이 다른 경우도 있다. 끝을 올려 말하면 특히 상대방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면이 강해진다. 이때 끝에 ‘よ’를 쓰지 않아도 그렇게 부자연스럽지는 않지만, 호소력이 떨어질 수 있다.

예 A: この本は面白いですか。

B: ええ、面白いですよ。／

끝을 올려 말함으로써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사실을 알려 주고 있다. 끝에 ‘よ’를 붙여 단순히 질문에 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사실을 확실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기분을 나타낸다.

예 A: これ、おいしいですね。

B: いやあ、まずいですよ。＼

끝을 내려 상대방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이 다를음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それはおいしくないですよ。／やめたほうがいいですよ。

말끝의 어조와는 무관하다.

- ②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사실을 전할 때

예 さっき、田中さんが来ましたよ。／(＼)

- ③ 상대방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경우

예 あ、カサを忘れていますよ！／

- ④ 명령, 의뢰의 경우에는 확인하고 강요하는 느낌이 한층 강하다.

예 明日、来てくださいよ。

行きなさいよ。

早く来いよ。

行くなよ。

※ 인토네이션에 따른 의미: 말끝을 내리는 경우는 상대방이 자신의 말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과 재촉하는 의미가 있다.

예 今日のことはもういいから、明日は早く来いよ。＼

ぐずぐずするなよ、早く来いよ。＼

18 い형용사의 ない형(부정형), て형, た형(과거형)

1) い형용사의 ない형(부정형)

‘이형용사’에 부정의 의미를 수반하는 ‘ない’를 연결할 때 나타나는 어미의 변화 형태를 말하는데, ‘이형용사’의 어미 ‘い’를 없애고 ‘くない’를 붙여 쓴다. 정중체는 어미 ‘い’를 없애고 ‘くありません’을 붙이거나 보통체에 ‘です’를 붙여 쓰면 된다. 단 ‘いい’는 ‘いくない’가 아니라 ‘よい’의 활용형인 ‘よくない’의 형태로 활용한다.

예 このパンはおいしくない。

あの二人は以前から仲がよくない。

2) い형용사의 て형

‘이형용사’에 ‘て’가 연결될 때 나타나는 어미의 변화 형태로, 어미 ‘い’를 없애고 ‘くて’를 붙여 쓴다. 우리말의 ‘~하고, ~해서’에 해당한다.

예 姉は背が高くて、妹は背がひくいです。

あの食堂は安くておいしいです。

3) 이형용사의 た형(과거형)

‘이형용사’에 과거 · 완료를 나타내는 ‘た’를 연결할 때 나타나는 어미의 변화 형태로, 어미 ‘い’를 없애고 ‘かった’를 붙여 쓴다. 정중체의 과거형은 ‘～かったです’가 된다.

예) 今度の試験はむずかしかった。

きのう動物園で見たさるはおしりがとても赤かったです。

19 동사의 ない형과 たい형

1) 동사의 ない형

동사에 부정을 나타내는 ‘ない’가 접속하기 위해 변화한 형태를 말한다. 우리말의 ‘～하지 않다’에 해당한다.

- ① 5단 동사(1류 동사) : 동사의 어미 ‘ウ단’을 ‘ア단’으로 바꾸고, ‘ない’를 붙인다. 단, ‘会う, 買う, 言う’와 같이 어미가 ‘ウ’로 끝나는 동사는 ‘ウ’를 ‘わ’로 바꾸고 ‘ない’를 붙인다.
- ② 1단 동사(2류 동사) : 동사의 어미 ‘る’를 없애고 ‘ない’를 붙인다.
- ③ 불규칙 동사(3류 동사) : 불규칙 활용을 한다.

2) 동사의 たい형

‘동사의 ます형+たい’의 형태로 말하는 사람의 희망을 나타낸다. 우리말의 ‘～하고 싶다’에 해당한다. 희망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조사 ‘が’를 사용하지만, 현대 일본어에서는 ‘を’를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 제3자의 희망이나 원망, 또는 욕구를 나타낼 때는 ‘동사의 ます형+たがる’의 형태를 쓴다. 우리말의 ‘～하고 싶어 하다’에 해당한다. 희망의 대상은 조사 ‘を’를 사용한다.

예) 水が飲みたいです。

子供はあめを食べたがる。

▶ ない형・たい형의 활용표

동사의 종류	기본형	ない형	たい형
5단 동사 (=1류 동사)	会う	会わない	会いたい
	行く	行かない	行きたい
	泳ぐ	泳がない	泳ぎたい
	話す	話さない	話したい
	待つ	待たない	待ちたい
	死ぬ	死なない	死にたい
	遊ぶ	遊ばない	遊びたい
	飲む	飲まない	飲みたい
	乗る	乗らない	乗りたい
1단 동사 (=2류 동사)	見る	見ない	見たい
	食べる	食べない	食べたい
불규칙 동사 (=3류 동사)	来る	来(こ)ない	来(き)たい
	する	しない	したい

20 동사의 て형과 た형

1) 동사의 て형 만들기

동사가 ‘て’에 접속할 때의 어미 변화 형태로 5단 동사(1류 동사)에 한해서 ‘음편형’이라고도 한다. 우리말의 ‘～하고, ～해서’에 해당한다.

① 5단 동사(1류 동사)

- ▶ 어미가 ‘<(く)’로 끝난 동사는 ‘<(く)’를 없애고 ‘いて(いで)’를 붙인다. 단, ‘行く’의 경우 ‘行いて’가 아니라 ‘行って’로 활용한다.
- ▶ 어미가 ‘う, つ, る’로 끝난 동사는 ‘う, つ, る’를 없애고 ‘って’를 붙인다.
- ▶ 어미가 ‘ぬ, ぶ, む’로 끝난 동사는 ‘ぬ, ぶ, む’를 없애고 ‘んで’를 붙인다.
- ▶ 어미가 ‘す’로 끝난 동사는 ‘す’를 없애고 ‘して’를 붙인다.

② 1단 동사(2류 동사) : 어미 ‘る’를 없애고 ‘て’를 붙인다.

③ 불규칙 동사(3류 동사) : 불규칙하게 활용을 한다.

2) 동사 て형의 의미

동사의 ‘て형’은 두 개 이상의 문장을 한 문장으로 연결할 때 쓰는데, 이 때 앞뒤 문장의 관계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① 순차적인 동작 : ~하고 나서

예 7時に朝ごはんを食べて、学校へ行きます。

② 동시동작 : ~한 상태로

예 いすに座って、テレビを見ます。

③ 수단, 방법 : ~으로

예 自転車に乗って、会社へ行きます。

④ 원인, 이유 : ~해서, ~때문에

예 風邪にひいて、学校を休みました。

⑤ 동작의 나열 : ~하고

예 母が詩を書いて、父が作曲をします。

3) 동사의 た형 만들기

동사가 ‘た’에 접속할 때의 어미 변화 형태로, 과거, 완료 등의 의미를 나타내며, 우리말의 ‘~었다’에 해당한다. ‘た형’을 만드는 방법은 ‘て형’을 만드는 방법과 동일하다.

▶ て형・た형의 활용표

동사의 종류	기본형	접속 방법 (た형은 아래 접속 방법에서 て를 た로 바꾸면 된다.)	て형	た형
5단 동사 (=1류 동사)	書く	어미가 <(く)’로 끝난 동사는 <(く)’를 없애고 いて(いで)’를 붙인다. * 行く는 예외로 行って	書いて	書いた
	泳ぐ		泳いで	泳いだ
	買う	어미가 う, つ, る로 끝난 동사는 う, つ, る를 없애고 って를 붙인다.	買って	買った
	待つ		待って	待った
	作る		作って	作った
	死ぬ	어미가 ぬ, ぶ, む로 끝난 동사는 ぬ, ぶ, む를 없애고 んで를 붙인다.	死んで	死んだ
	遊ぶ		遊んで	遊んだ
	飲む		飲んで	飲んだ
5단 동사 (=1류 동사)	話す	어미가 す로 끝난 동사는 す를 없애고 して를 붙인다.	話して	話した
1단 동사 (=2류 동사)	見る	어미 る를 없애고 て를 붙인다.	見て	見た
	食べる		食べて	食べた
불규칙 동사 (=3류 동사)	来る	불규칙하게 활용을 한다.	来て	来た
	する		して	した

4) 동사 た형의 의미

동사의 '타형'은 어떤 동작이나 사건이 과거에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거나 과거에 완료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예)きのうは一日中雨が降った。

A: 昼ごはんは食べた？

B: うん、もう食べたよ。

21 ～ように의 용법

‘～ように’는 동사의 기본형에 연결하여, 의도적으로 노력하거나 상태의 추이에 따라 그렇게 되었음을 나타낼 때 쓴다. 우리말의 ‘～하게, ～하도록’에 해당한다. 동사의 ‘ない형’에 접속하는 ‘～ないように’는 우리말의 ‘～하지 않도록’에 해당한다.

1) 목적

예) 熱が下がるように注射をしました。

会議に遅れないように急ぎましょう。

2) 내용 지시

예) できるだけ全部書け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

電気を無駄使いしないように気をつけてください。

22 조언의 ～たほうがいい

동사의 '타형'에 접속하여 자기 생각이나 일반적인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제안하거나 충고할 때 쓰는 조언 표현으로 우리말의 ‘～하는 편이 좋다’에 해당한다. 동사의 기본형에 ‘ほうがいい’가 접속할 경우는 일반론을 이야기할 경우나 부드럽게 제안할 경우에 많이 쓰이고, 조언이나 충고의 의미는 약해진다. 부정 표현은 ‘～ないほうがいい’로 우리말의 ‘～하지 않는 게 좋다’에 해당한다.

예) 熱があるから早く寝たほうがいいです。

食事をして、すぐ歯をみがいたほうがいいです。

食事をして、すぐ寝ないほうがいいです。

23 접속 조사 しの 용법

- ① 두 가지 이상의 사실을 열거할 때 사용하는데, 병렬된 사항들이 맺구를 이루어 강조를 나타낸다. 우리말의 ‘～하고, ～하니’에 해당한다. 중지형의 한 형태이다.

예) 雨も降るし、風も吹く。

彼女はきれいだし、頭もいいです。

- ② 원인, 이유를 나타낸다.

예) 日は暮れるし、雪は降るし、どうにもならない。

この食べものは値段も安いし、おいしいし、気に入っています。

24 ～ている 용법

우리말의 ‘～고 있다. ～어 있다’에 해당하는 표현으로, 동사에 따라 진행, 결과 상태, 습관·반복, 단순 상태, 경험 등의 의미를 나타낸다.

- ① 동작의 진행 : 계속 동사(동작이 일정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동사)에 ‘～ている’가 붙은 경우

- 예) ご飯を食べている。
雨が降っている。
- ② 결과 상태 : 순간 동사(동작이 순간적으로 성립하는 동사)에 ‘ている’가 붙은 경우
예) 人が死んでいる。
ドアが開いている。
- ③ 습관·반복 : 주로 부사 ‘いつも, 毎日, 毎朝’ 등과 함께 쓰이며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일이나 습관을 나타낸다.
예) わたしは毎朝 6 時に起きています。
父は毎日勉強しろと何度も言っている。
- ④ 단순 상태 : 원래 그런 상태였던 것을 나타낸다.
예) 山がそばえている。
わたしは母に似ている。
- ⑤ 경험
예) 彼女は日本を 3 度も訪れている。
彼は 3 年前に高校を卒業しています。

25 ~てある 용법

우리말의 ‘~어 있다, ~해 두다’에 해당하는 표현으로, 항상 타동사와 접속하여 다른 사람이 변화시켜 나타난 결과 후의 상태를 말한다.

- ① 결과 상태 : 어떤 동작이 일어난 후, 그 결과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때 타동사의 목적어 を는 が로 바뀐다.
예) ノートに名前が書いてある。
電気がつけてある。
- ② 준비 : 우리말의 ‘~해 두다’로 해석되면 ‘ておく’와 바꿔 쓸 수 있고, 목적격 조사 ‘을’를 ‘が’로도 ‘을’로도 쓸 수 있다.
예) ホテルの予約をしてあります。
料理はたくさん準備してあります。

26 ~ておく 용법

우리말의 ‘~해 두다’에 해당하는 표현으로, 무언가를 하기 전 그것을 위해 준비해 둔다는 뜻이다.

- 예) 寝る前に、目覚まし時計をセットしておく。
来週、田舎へ帰るので、前もって、新幹線の切符を買っておきました。

27 ~そうだ 용법

1) 전문의 ~そうだ (~에 의하면) ~라고 한다, ~라더라, ~대요

화자가 보거나 들어서 얻은 정보를 타인에게 전할 때 사용한다. 정보의 출처는 ‘によると, によれば’ 등으로 표시한다. 접속은 ‘(명사+だ, 동사·이형용사·나형용사의 기본형)+そうだ’이다.

- 예) 今日のメニューは味噌汁だそうです。
天気予報によると、明日は雨が降るそうです。
話によれば、その映画はおもしろくないそうです。
木村さんの恋人はきれいだそうです。

2) 추측의 ~そうだ ~인 것 같다, ~인 듯하다, ~해 보인다

외관적인 모습이나 인상 등 시각적 정보를 토대로 추측하거나 해당 사항에 대한 화자의 판단, 예측, 예감을 나타낸다. 접속은 ‘동사의ます형, い형용사・な형용사의 어간 + そうだ’로, 명사에는 접속되지 않는다. 단, ‘いい’는 ‘よさそうだ’, ‘ない’는 ‘なさそうだ’로 접속한다. 부정형은 동사에는 ‘ます형 + ~そうもない／~そうにない／~そうにもない’를 사용하고, ‘い형용사’와 ‘な형용사’에는 ‘어간 + ~そうではない／~なさそうだ’를 사용한다.

- 예 彼女は泣きそうな顔をしている。
この漫画はおもしろそうです。
あしたは天気がよさそうです。
彼はまじめそうではない。

28 경험의 ~たことがある

과거의 경험이나 경력을 나타내며 우리말의 ‘~한 적(일)이 있다’에 해당한다. 접속은 ‘동사의 た형 + ことがある’이고, 반대 표현은 ‘~たことがない’를 쓴다. 동사의 기본형에 접속하면 ‘가끔 ~할 때도 있다’라는 의미가 되므로 주의한다.

- 예 富士山に登ったことがあります。
日本で納豆を食べたことがあります。
わたしは東京へ行ったことがありません。
週1回ぐらい弁当を食べることがあります。

29 동사의 ~う／~よう형

‘동사의 ~う／~よう형’은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거나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제안하거나 권유할 때 사용하는 표현으로, 우리말의 ‘~하려고 하다, ~하자’ 등에 해당한다.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동사의 종류	기본형	접속 방법	~う／~よう
5단 동사 (=1류 동사)	会う	동사의 어미 う단을 オ단으로 바꾸고 う를 붙인다.	会おう
	行く		行こう
	泳ぐ		泳ごう
	話す		話そう
	待つ		待とう
	死ぬ		死のう
	遊ぶ		遊ぼう
	飲む		飲もう
	乗る		乗ろう
1단 동사 (=2류 동사)	見る	동사의 어미 る를 없애고 よう를 붙인다.	見よう
	食べる		食べよう
불규칙 동사 (=3류 동사)	来る	불규칙하게 활용을 한다.	来(こ)よう
	する		しよう

- 예 夏休みには海に行こう。
もう12時か、そろそろ寝よう。
田中さんに学校へ行く前に、電話しよう。

30 가능 동사

가능 표현이란 행위자가 자신의 기술적·신체적인 능력의 유무(능력 가능)를 나타내거나 어떤 상황 아래에서 그 행위의 실현 가능 여부(상황 가능)를 나타낸다. 이런 가능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현에는 ‘가능 동사’, ‘동사의 기본형+ことができる’, ‘명사+ができる’가 있다. 가능 동사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동사의 종류	기본형	접속 방법	가능 동사
5단 동사 (=1류 동사)	会う	동사의 어미 う단을 い단으로 바꾸고 る를 붙인다.	会える
	行く		行ける
	泳ぐ		泳げる
	話す		話せる
	待つ		待てる
	死ぬ		死ねる
	遊ぶ		遊べる
	飲む		飲める
	乗る		乗れる
1단 동사 (=2류 동사)	見る	동사의 어미 る를 없애고 られる를 붙인다.	見られる
	食べる		食べられる
불규칙 동사 (=3류 동사)	来る	불규칙하게 활용을 한다.	来(こ)られる
	する		できる

예 私は日本語ができます。(능력 가능)

会議中は中に誰も入れません。(상황 가능)

가능 동사를 쓰면 목적어를 나타내는 ‘を’를 기본적으로 ‘が’로 바꾸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언어생활에서는 ‘を’를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다. 다음은 ‘を’를 자주 사용하는 경우다.

예 彼は妻を引き止められない。(가능 동사와 대상과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こんな難しい本を辞書なしですらすら読めるなんてすごい。(대상이 명확하지 않을 때)

31 수수 표현

수수 표현이란 물건이나 이익이 되는 행동을 주고받는 것에 관련된 표현으로, ‘あげる, くれる, もらう’ 등의 수수 동사가 쓰인다. 상대가 손윗사람인가 손아랫사람인가, 그리고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 사용되는 동사가 다르다. 일본어의 수수 표현은 물건을 주고받는 ‘물건의 수수’와 이익이 되는 행동(은혜)을 주고받는 ‘은혜의 수수’로 나눌 수 있다.

1) 물건의 수수

물건을 주고받는 것과 관련된 표현으로, 수수동사가 단독으로 쓰인다. 누가 누구에게 물건을 주는가에 따라 동사를 구분하여 사용한다.

① あげる : 나(나의 가족, 친구) 또는 제3자가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줄 때 사용하며 우리말의 ‘주다’에 해당한다. ‘あげる’와 같은 의미로 ‘やる’와 ‘さしあげる’가 있다. ‘やる’는 동·식물에게, 또는 손윗사람이 손아랫사람에게 물건을 줄 때 사용하고, ‘さしあげる’는 손아랫사람이 손윗사람에게 물건을 드릴 때 사용한다.

[주는 사람]が(は) [받는 사람]に [물건]を あげる

(나/가족) (제3자)

예 私は彼にプレゼントをあげた。

弟は田中さんにサッカーのチケットをあげました。

私は毎日花に水をやります。

先生に韓国のカレンダーをさしあげました。

- ② くれる : 제3자가 나(나의 가족, 친구)에게 물건을 줄 때 사용하며 우리말의 '주다'에 해당한다. 손윗사람이 나(나의 가족, 친구)에게 물건을 줄 때는 'くださる'를 사용한다.

[주는 사람]가(は) [받는 사람]に [물건]을 くれる

(제3자) (나/가족)

예 彼は私にお花をくれた。

田中さんが弟にコンサートのチケットをくれました。

先生が私に京都の記念品をくださいました。

- ③ もらう : 내(나의 가족, 친구)가 제3자에게서 물건을 받을 때 사용하며 우리말의 '받다'에 해당한다. 내(나의 가족, 친구)가 손윗사람에게 물건을 받을 때는 'いただく'를 사용한다.

[받는 사람]가(は) [주는 사람]に(から) [물건]を もらう

(나/가족) (제3자)

예 私は彼にお花をもらった。

弟は田中さんに映画のチケットをもらいました。

私は先生に京都の記念品をいただきました。

2) 은혜의 수수

이익이 되는 행동을 주고받는 것과 관련된 표현으로, 수수 동사가 보조 동사가 되는 '〜てあげる, 〜てくれる, 〜てもらう'의 형태로 쓰인다.

- ① 〜てあげる : 나(나의 가족, 친구) 또는 제3자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해 줄 때 쓰며, 우리말의 '〜해 주다'에 해당한다. '〜てあげる' 외에도 '〜てやる'나 '〜てさしあげる'를 쓸 수 있다. '〜てやる'는 손아랫사람이나 친한 사이일 경우에, '〜てさしあげる'는 손윗사람에게 쓴다. 다만, '〜てあげる'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해 줄 때 쓰기 때문에 자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은혜를 베푼다는 느낌이 강하므로, 손윗사람에게 직접 '〜てあげる'나 '〜てさしあげる'를 쓰는 것은 실례가 된다. 손윗사람에게 '〜해 드리다'라고 할 때에는 'お+ます형+する' 형태를 쓰는 것이 좋다.

[주는 사람]가(は) [받는 사람]に [이익이 되는 행동]을 〜てあげる

(나/가족) (제3자)

예 私は鈴木に本を貸してあげた。

私は妹に日本語を教えてやりました。

田中は先生に辞書を貸してさしあげました。

私は先生に辞書をお貸しました。

- ② 〜てくれる : 제3자가 나(나의 가족, 친구)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해 줄 때 쓰며, 우리말의 '〜해 주다'에 해당한다. 손윗사람이 나(나의 가족, 친구)에게 무엇인가를 해 줄 때는 '〜てくださる'를 사용한다.

[주는 사람]が／は [받는 사람]に [이익이 되는 행동]을 〜てくれる

(제3자) (나/가족)

예 鈴木さんは私に本を貸してくれた。

田中さんは妹に日本語を教えてくださいました。

先生が私に本を紹介してくださいました。

- ③ ～てもらう：내(나의 가족, 친구)가 제3자에게서 은혜나 이익이 되는 일을 받을 때 쓰며, 우리말의 ‘～해 받다’에 해당한다. 하지만 ‘～てもらう’을 ‘～해 받다’로 직역을 하면 어색하므로 ‘～てくれる’와 같이 ‘～해 주다’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손윗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받을 때는 ‘～ていただく’을 쓴다.

[받는 사람]が(は) [주는 사람]に(から) [물건]を ～てもらう
(나/가족) (제3자)

- 예 私は鈴木さんに本を貸してもらった。
私は木村さんから英語を教えてもらいました。
私は先生に本を紹介していただきました。

32 ～すぎる 용법

어떤 행위나 상태의 정도가 허용치를 넘은 것을 나타내며, 우리말의 ‘너무 ～하다, 지나치게 ～하다’에 해당한다. 보통 상태가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에 많이 쓰인다. ‘동사의ます형’과 ‘이형용사·나형용사의 어간’에 접속한다.

- 예 食べすぎておなかがいっぱいです。
このスーツが10万円ですか。高すぎますよ。

33 존경 표현

경어란 화자가 청자나 화제 속 인물에게 경의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말로, 청자에게 경의를 표하는 존경어, 화자가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말하는 겸양어, 자신의 말을 정중하게 표현하는 공손어 등으로 나뉜다. 먼저 존경 표현에 대해 알아보자.

1) 존경 동사 만들기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행위를 높이는 방법으로 직접 높인다. 단어 자체에 존경의 의미를 지닌 말도 있고 존경을 나타내는 형태로 만들어 쓰기도 한다.

동사의 종류	접속 방법	예
5단 동사(=1류 동사)	동사의 어미를 ア단으로 바꾸고 れる를 붙인다.	会う→会われる 休む→休まれる
1단 동사(=2류 동사)	동사의 어미 る를 떼고 られる를 붙인다.	降りる→降りられる 出かける→出かけられる
불규칙 동사(=3류 동사)	불규칙 활용을 한다.	来る→来られる する→される

- 예 会社にはもうレポートを出されましたか。
部長の奥さんは大学で哲学を教えられています。

2) お+동사의ます형+になる／ご+동작성 명사+になる

존경어를 만드는 대표적인 형식이다. ‘お’와 ‘ご’의 사용은 기본적으로 ‘お+고유어’, ‘ご+한자어’이다. ‘동작성 명사+する’ 형태의 단어는 대부분 접두어 ‘ご’를 붙여 만든다.

- 예 どのくらいお待ちになりましたか。
社長は30分ほど前にお出かけになりました。
先生はいつ大学をご卒業になりましたか。

3) お+동사의ます형+ください／ご+동작성 명사+ください

상대방에게 정중하게 의뢰를 하거나 권유를 할 때 쓴다. 간단하면서도 존경도 높은 표현이다.

예) 今日お話しくださる方は、中村先生です。

少々お待ちください。

奥さんによろしくお伝えください。

今日中にご連絡ください。

34 겸양 표현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행위를 높이는 방법으로 자신을 낮추어서 상대방을 높인다. 단어 자체에 겸양의 의미를 지닌 말도 있고 겸양을 나타내는 형태로 만들어 쓰기도 한다.

▶ お+동사의ます형+する／ご+동작성 명사+する ~해 드리다

겸양어를 만드는 대표적인 형태로 ‘する’ 대신에 ‘いたす’를 써도 된다.

예) 私の辞書をお貸しします。

明日までには必ずお届けします。

ソウルにいらっしゃったら、私のご案内します。

♣ 존경, 겸양의 의미를 가진 특별 동사

기본형	존경어	겸양어
行く	いらっしゃる, おいでになる	参る, 伺う
来る	いらっしゃる, おいでになる 見える, お見えになる	参る, 伺う
いる	いらっしゃる, おいでになる	おる
飲む・食べる	あがる, 召し上がる	いただく
する	なさる	いたす
あげる		さしあげる
くれる	くださる	
もらう		いただく, ちょうだいする
言う	おっしゃる	申す, 申し上げる
見る	ご覧になる	拝見する
知っている	ご存じだ	存じておる, 存じ上げる
聞く		伺う, 承る(듣다의 경우)
訪ねる		伺う, おじゃまする, 上がる
会う		お目にかかる
寝る	お休みになる	
着る	お召しになる	
分かる		承知する, かしこまる
見せる		お目にかける, ご覧に入れる